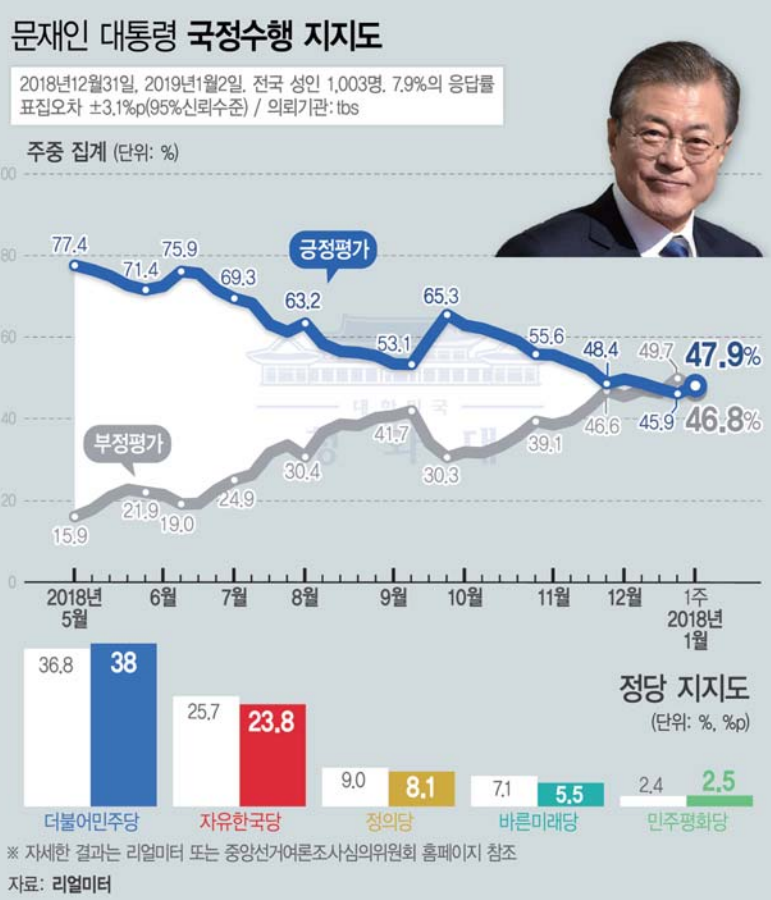


文대통령 지지율 47.9% 하락세 멈추며 2%p 반등

민주 38% · 한국 23.8% · 정의 8.1% · 바른 5.5% · 평화 2.5% 順



—69.3%), 보수층(▲7.8%p, 21.8% →29.4%)과 중도층(▲1.1%p, 42.7%→43.8%)에서 고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4.0%p, 38.1%→34.1%)과 충청권(▼2.0%p, 50.3%→48.3%), 주부(▼2.4%p, 41.3%→40.7%)와 학생(▼2.0%p, 47.9%→45.9%), 진보층(▼5.2%p, 74.3%→69.1%)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2%p 오른 38%를 기록했다. 뒤이어 자유한국당(23.8%), 정의당(8.1%), 바른미래당(5.5%), 민주평화당(2.5%) 순이었다. 한국당은 1.9%p 내렸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0.9%p와 1.0%p 내렸다. 평화당은 전주 대비 0.1%p 올랐다.

한편 리얼미터가 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 (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응답률 8.6%)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중 6명인 60.9%가 문 대통령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답한 핵심 지지층은 34.8%였다. 현재는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답한 지지층은 25.3%였다.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반대율은 36.3%로 나타났다. '임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답한 핵심 반대층은 19.5%였으며, 현재는 반대하지만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 있다는 16.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2%p 오른 47.9%를 기록하며 3주 간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에 성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해 31일, 2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공개한 1월1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7.9%)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9%가 문 대통령에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9%p 내린

46.8%(매우 잘못함 28.6%, 잘못하는 편 18.2%)로 집계됐다. 격차는 오차범위(±3.1%p) 내인 1.1%p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더 모름·무응답은 지난주 대비 0.9%p 증가한 5.3%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서울(▲7.7%p, 49.9%→57.6%)과 경기·인천(▲3.7%p, 43.0%→46.7%), 대구·경북(TK)(▲5.5%p, 37.2%→42.7%), 호남(▲1.0%p, 63.0%→64.0%), 30대 이상(▲4.6%p, 34.5%→39.1%), 노동직(▲9.7%p, 41.3%→51.0%)과 사무직(▲2.6%p, 56.7%

해 정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고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현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높으며,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구속민기를 이유로 석방하는 것을 보니 적폐정신마저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평화당 "우병우 석방, 적폐세력에 정권넘어갈까 걱정"

민주평화당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새벽 석방된 것과 관련해 "히라다 민심의 실망이 쌓여 다시 적폐세력에 정권이 넘어가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가

정치개혁을 비롯한 경제사회개혁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적폐세력들이 다시 발호하고 기득권의 반격으로 개혁은 요원해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득이나 박은

해 정부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고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현 사법부에 대한 불만도 높으며,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구속민기를 이유로 석방하는 것을 보니 적폐정신마저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나란히 앉은 손학규-김병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신년인사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여야, '신재민 폭로' 공방... "기재위 소집" vs "계변·정쟁"

여야는 3일 신재민 전 기재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국제매입 취소 의혹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가 하면 조사단 회의를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국회 기재위 소집 요구 등을 일축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형편상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지금 이 시기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스로트'(Deep Throat)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이 생각하는 시기"라며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제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기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너 이상 기재위 소집을 늦출 수 없다. 국회는 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런 일에서 정부 상임위가 소

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당장 국회에 기재위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검토하는가 하면 조사단 회의를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국회 기재위 소집 요구 등을 일축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형편상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기재부 전 사무관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조작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계변에 불과하다"며 "그러면서 기재위 등 상임위 소집요구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원 사건을 정쟁으로 부풀려던 방식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정치적, 정치적 판단 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정치권을 등한시하고 관료 중심적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에는 정치를 끌어들이는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우 의원도 "신 전 사무관의

한국당 "특기법상 국고손실죄 해당 등 심각하게 검토"

바른미래·평화당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 촉구"

민주당 "모순적 행동 근거없는 주장...자중자재 하길"

라며 "혹여 청와대와 민주당 기재부의 삼각편대가 입을 맞추며 내부 고발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인의 주장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기재위 등 상임위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기재위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기재위가 필요하다. 그런 회의라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법률자 김태우 수사관에 돌아다니다 판사리를 맞은 한국당이 쫓내기 사무관의 방만한 행동에 또 다시 출을 쫓려 하는 꼴이 참으로 사납다"라며 "제이당으로서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자중자재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안길 5